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오늘의 기분은 사과

김지현 장편소설

주제어: 사춘기, 친구관계, 감정, 진심

• 책 소개

2022년 제20회 사계절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지현 작가의 새 청소년소설. 친구들과의 다툼이 싫어 늘 자신의 감정을 검열하며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열일곱 살 소녀 이경이 상대를 향한 신의와 믿음으로 여러 관계 안의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과 꿈에도 진심을 다하는 과정을 그려낸 성장소설이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데 거침이 없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경은 묘한 해방감과 부러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친구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

• 학습 목표

1. 소재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2.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내면화할 수 있다.
3.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성격과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읽기 전	작품과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2	읽기 중	아는 꿈 ~ 전학생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의 성격 추론하기 3. (공감적 읽기)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기 4. (창의적 읽기) 작품 내용과 관련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떠올리기
3		머리 위 구름 ~ 타임캡슐 1. (사실적 읽기+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의 성격 추론하기 3. (창의적 읽기) 작품 내용과 관련된 지식 쌓기
4		엘로카펫 ~ 빈 의자 1. (감상적 읽기) 등장인물의 심리 공감하기 2.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4. (비판적 읽기) 작품 내용과 관련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떠올리기
5		지구의 모양 ~ 절교할 결심 1. (감상적 읽기)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기 2. (감상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3. (창의적 읽기) 작품 내용과 관련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떠올리기 4. (창의적 읽기) 작품 내용과 관련된 지식 쌓기
6		오늘의 기분은 () ~ 마음의 지옥 1. (창의적 읽기) 작품 내용과 관련된 지식 쌓기 2. (추론적 읽기)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의 성격 및 특성의 차이점 파악하기 4. (감상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7		너의 조각 ~ 비와 산책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비판적 읽기) 인물의 행동 비판하기 3. (추론적 읽기)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4. (감상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8-1		낮설고도 다정한 ~ 장마가 지나고 1. (추론적 읽기+사실적 읽기)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 + 내용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작품 주제 파악하기 + 배경의 상징성 파악하기
8-2	읽기 후	표지의 상징성 파악하기

1.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1-1. 아래 질문에 답하며 나의 친구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1. 나의 친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그 친구와는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요?
-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이었나요?

2.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려봅시다.

- 함께한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 친구 덕분에 위로받았거나 힘이 났던 적이 있나요?
- 싸웠던 적이 있다면, 어떻게 화해했나요?

3. 친구의 성격과 매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친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예: 차분하다, 유쾌하다, 배려심이 많다 등)
- 친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모습은 어떤 건가요?
- 친구의 장점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1)

(2)

(3)

1-2. 1-1의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2. 아래 질문에 답하며 여러분의 생각하는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 나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예: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등)

2.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아래에서 고르거나 스스로 적어보세요. (복수 선택 가능)

☐ 신뢰 ☐ 배려 ☐ 공감 ☐ 재미 ☐ 정직 ☐ 책임감 ☐ 노력 ☐ 진심 ☐ 기타:()

- 선택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3. 친구 덕분에 생긴 좋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봅시다.

(예: 성격이 밝아졌다, 도전하는 힘이 생겼다 등)

4. 진짜 친구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봅시다.

(예: 성적이 떨어졌을 때 위로해줬다, 생일을 챙겨줬다 등)

5.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 나를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 나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해봅시다.

진짜 친구란 ()이다.

3. 『오늘의 기분은 사과』를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

- ▶ 『오늘의 기분은 사과』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친구 관계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그 인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친구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읽어보세요. 소설 속에 폭 빠저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적 읽기) ○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봅시다.

- ▶ 이경과 전술은 ○○ 초등학교에 다녔었다.
- ▶ 전술은 ○○○○○에서 우연히 만난 이경에게 같이 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 ▶ 이경은 영어 ○○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유일한 학생이었다.
- ▶ 이경은 ○○ ○○○을/를 구하기 위해서 낯선 동네의 ○○ 서점에 들렀다.

2. (추론적 읽기) 다음에서 드러나는 이경의 성격을 파악해 봅시다.

(1)

꿈속에서 나는 텅 빈 방 안에 있었다. 문은 없고 창문만 있는 직사각형 방. 창문 틈으로 무언가 스멀 스멀 스며들었다. 연기인가, 불이 난 건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당연하게도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는데 방 안 벽지가 보기 싫게 우그러졌다. 눈을 뜨기 직전 생각했다. 망했다, 여긴 지금 안전하지 않아. 잊을 만하면 종종 꾸는 꿈이었다.

(...) 현관 문고리를 잡았다. 갔다 올게. 집을 나설 때마다 습관처럼 하는 말인데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잘 다녀오는 것. 그게 정말 나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2)

“근데 저 검은색 차 이상하지 않아?”

“그치? 끼어들고 난리야.”

“미친. 술 취했나?”

교복 무리의 말소리가 커졌다. (...) 저녁이 지나고 잠들기 전, 나는 포털 사이트의 지역 기사란을 열어보았다. 교통사고, 시내버스, 음주 운전. 몇 개 키워드를 검색했다. 새로운 기사는 없었다. 마냥 개운하지만은 않은 안도감이 들었다.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다.

3. (감상적 읽기) 〈보기〉와 같이, 친한 무리에 있던 친구와 실은 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중3 때 같은 반이었던 네 명 무리에서 우리 둘만 이 학교로 오게 됐다.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땐 몰랐는데 둘만 특 떨어지니 알 수 있었다. 규리와 나는 실은 별로 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다 할 공통 관심사도 없고, 둘이서만 속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사실도. 이제 규리와 같은 반도 아니니까 서서히 멀어지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

4.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관해 알아봅시다.

“여태 기다렸잖아!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날 선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무리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품이 동영상 찍는 듯했다. ‘젤라토 가게 진상’ 뭐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오려나.

(…) 아이스크림을 다시 떠먹었다. 달콤 시원한 것이 입안에 퍼지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분이 풀리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는 걸까?

▶ 참고 영상 : 자주 화를 내는 당신, 진짜 문제는? 뇌과학으로 보는 분노의 메커니즘! | 과학, 분노 조절, 화 다스리기!

<https://www.youtube.com/watch?v=QYEB40mIZcY>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주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주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1. (사실적 읽기) 괄호를 채워 영어 모둠 활동의 역할 분담을 정리해 봅시다.

이름	맡은 역할
김이경	독해
박유정	()
()	PPT 만들기
()	자료 조사

1-2. (추론적 읽기) 다음 장면에서 강유림이 이경에게 하려던 말을 추측해 봅시다.

〈보기〉

“수업 종이 올랐다.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 아이들도 금방 흩어졌다. 쪽수로 열 장이 넘는 영어 원서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이걸 나 혼자서 번역해야 하다니.

“너 말이야.”

가만히 지켜보던 강유림이 말했다.

“응?”

“아냐.”

강유림은 자리로 가버렸다.

너 말이야.

2. (추론적 읽기) 다음 장면에서 보이는 이경의 성격을 분석해 봅시다.

[장면1]

“네가 매일 하루에 네 번 산책하는 거야?”

“아니. 가족이 번갈아 가며 나가지. 나는 낮에 학교에 있으니까.”

“나도 가끔 같이 해도 돼?”

“산책을? 왜?”

“심심해서.”

“나야 좋지!”

시루도 찬성하는지 나를 보며 세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심심해서 그렇다는 말은 반만 사실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술이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려서였다. 혼자서 개를 데리고 다니면 온갖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

[장면2]

- 좋아하는 가수 있어?

- 아니. 딱히 없어 ㅠㅠ

- 그럼 넌 뭘 좋아해?

드디어 영화 이야기를 꺼낼 때가 온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다. 강유림의 프로필 사진은 또 바뀌어서 지금은 기본 화면이었다. 지나간 프로필 이야기를 꺼내면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을까 망설여졌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다. 좋아하는 걸 말하다 보면 혼자 들떠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만 답장했다. 내가 답을 망설이는 사이 강유림이 화면을 꺾는지 메시지 옆 숫자 1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3.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시간의 상대성에 관해 알아보시다.

〈보기〉

“그럼 네가 그 타임캡슐을 열면 온 우주가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현재가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어떡해? 그 사람들은 억울할 거잖아.”

“그건 아니지. 넌 이 세상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너랑 나는 지금 같은 시간에 있는 거 아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전술과 시루는 여기서 건너가야 했다.

“가야겠다. 안녕.”

“응. 시루도 잘 가!”

나를 보는 시루의 눈이 반짝반짝했다. 대화 도중에 툭 헤어져서 그런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도 자리에 서서 전술과 시루가 건널목을 건너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전술은 어느 시간에 살고 있는 걸까. 알고 보면 나와 전술의 시간도 다른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까 나는 전술과의 대화가 자꾸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 ▶ 참고 영상 : [책쑈문] 당신과 나의 시간은 상대적이다 -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걸을 때
https://www.youtube.com/watch?v=M_Aheo9WyeA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감상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은지(찾집 언니)와 이경의 감정에 공감해 봅시다.

영화는 대홍수를 맞은 동물들이 함께 배를 타고 모험을 하는 내용이었다. 영화 속에선 인간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대사도 없었다. 고요한 대자연의 소리 사이, 옆에서 누군가 흘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 ▶ 참고 영상 : [귀여움에 담긴 삶의 철학 '플로우' 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Eh4t6vd7DBk>

2. (사실적 읽기) 괄호 안을 채워봅시다.

- ▶ 이경이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

→ (㉠) 때문에

- ▶ 솔이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

→ (㉡) 때문에

(㉢)이 (㉣)에게 수련회에 같이 가자고 (㉤)은 (㉥)을/를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 :

㉡ :

㉢ :

㉣ :

㉤ :

3. (추론적 읽기)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아는 얼굴인데 누구더라, 잠깐 멈칫했다 떠올랐다. 지난번 찻집에서 본 언니.
“아는 애들이야?”
“아니요. 갑자기 와서 이거 줬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떨떠름해?”
떨떠름? 내 표정이 그랬구나.
“이경이 너 솔이랑 비슷한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친구겠지만.”

4. (비판적 읽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불이 바뀌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걷는 동안에도 샛노란 표지판 속 문구가 눈에 띄었다. 저렇게 또렷한 노란색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경고 문구 따윈 얼마든지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겠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머지 사람들은 뭘까. ㉡그렇게 애쓰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종종 드는 의문이었다

4-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칸트의 입장에서 ㉠을 비판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 정언명령이 뭔데??칸트의 의무론적 관점, 10분만에 찢어버리기
<https://www.youtube.com/watch?v=evozwJ2sq8M>

4-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의 입장을 비판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 [우리들의 감성채널, 손난로] 착하면 손해다?
<https://www.youtube.com/watch?v=KoPgnkDKK5I>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감상적 읽기) 다음을 읽고 이경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규리네 교실을 지나면서는 일부러 고개를 숙였다. 규리의 인스타를 본 후로는 다행히 규리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규리를 보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절교 선언을 당했다고 해서 곤장 모른 채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했다가는 넌 참 눈치도 없다는 지긋지긋한 말을 또 듣게 될 것만 같았다.

2. (감상적 읽기) 다음을 읽고 두 물음 중 하나를 선택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개는 뭘 좋아하는 데 너무 인색해.”

조금 전까지 불만을 털어놓던 것과는 달리 은수의 말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한 거 아냐? 왜 꼭 뭔가를 하면 얻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걔 좋아하는 기준도 너무 까다로워. 세상에 완전무결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고 많으면 충분히 좋아할 수 있잖아. 응원해 줄 수 있잖아.”

▶ 참고 영상: 덕질이 인생에 이로운 이유 | 덕후초대석 김이나편

<https://www.youtube.com/watch?v=znfph2stmJE&t=1229s>

2-1.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경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소개해 주세요.

2-2. (좋아하는 것이 없는 경우) 조건 없이 뭔가를 좋아하는 은수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도 TIP

흥미를 돋우기 위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다면 16:17까지 보여주셔도 됩니다.

3.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전술은 대답 대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산책길에도 몇 번 지나친, 근처 상가 화단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였다. 고양이들이 밥을 다 먹고 가도 늘 다시 사료가 가득 담겨 있던 그릇들이 마구 내팽개쳐져 있었다. 누가 일부러 밟았는지 발자국이 찍혀 있고 지저분했다.

3-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길고양이 돌봄에 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 참고 영상: “밥 줘라” “안 된다” 길고양이 ‘주민 갈등’

<https://www.youtube.com/watch?v=4fB4v6bOiVY>

3-2.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4.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은지가 언급한 사건에 관해 알아보시다.

언니는 나를 큰길까지 데려다줬다. 그리고 지난번, 수련회에 가본 적 없다고 한 이유를 들려줬다. 언니가 학생이던 때, 언니와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 때 나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조금 더 자라서 알게 된 이야기였다. 언니는 졸업 여행을 가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했다. 모든 어른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하며 어른이 되어버렸다고.

- ▶ 참고 영상: [PD수첩] 세월호 10년의 기억, 밝혀진 것과 묻힌 것
<https://www.youtube.com/watch?v=xZ4E8M8FCqs>

지도 TIP

제시한 참고 영상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자료가 많으므로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짜증스러운 상황을 떠올린 후 그 안에 내포된 다양한 감정을 살펴봅시다.

“진짜 웃긴 게 뭐 줄 알아? 어떤 때는 내 기분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 짜증만 나. 이유도 모르는데 짜증 나고 기분이 더러워.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싶어.”

그럼 안 돼, 라는 말이 또 나올 뻔해서 참았다.

“그럼 짜증이 아닐 수도 있어.”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나. 내가 신경질이 많아지고 ‘싫어’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자 고모가 나에게 한 이야기였다. 화, 짜증, 그런 말로 뭉뚱그리기 전에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만큼 내 기분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 ▶ 참고 영상: 김영하가 ‘짜증’을 금지한 이유(X)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O)
<https://www.youtube.com/watch?v=oDWyJvOKb3Q>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	짜증남	▶	서운함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	당황스러움
()			▶	()
()			▶	()

2. (추론적 읽기) 전술이 하려던 말이 무엇일지 추측해봅시다.

“유림이한테 물어봤는데 개는 내 시놉시스 제대로 안 읽었었대. 사실 이런 소재는 흔하잖아. 어찌다 보니 우연히 겹쳤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래.”

대사라도 외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분명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 어색하기만 했다.

“그럼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준 거야?”

술이 조금 답답하단 얼굴로 물었다.

“내가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닌가 해서. 혼자 계속 고민하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내 생각에도 오해는 아닌 것 같은데.”

“.....”

“물론 흔한 소재고 겹칠 수는 있는데, 네가 이 글을 보여준 게 먼저라며. 그러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과 의도적으로 베낀 건 분명 다르잖아. 그렇게 답하려고 했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술을 만나러 달려오면서 내내 맴돌던 말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내가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정해진 대사처럼 뱉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유림을 믿고 싶은 걸까. 아니면 실은 그저 나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유림과 맞서 싸울 자신이 없는 걸까.

“유림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

“.....”

“들어줘서 고마워.”

전술은 할 말이 남은 듯한 눈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루를 데리고 공원을 한 바퀴 크게 돌고 나서 헤어졌다.

3. (추론적 읽기) 이경이 쓴 시나리오의 결말에 관한 조언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유림과 술 간의 성향 차이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유림의 조언]

“이건 말이야, 엔딩이 더 강렬한 게 낫지 않아?”

“응? 그런가?”

“애가 전형적인 빌런이잖아. 이렇게 흐지부지 사라지는 건 아쉽지.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충분히 납득되는 말이었다. 이왕 악역을 넣기로 했으면 마지막엔 벌을 줘야 하니까.

집으로 와서 유림이 말한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보았다. 지금 내용에서는 주인공을 괴롭히던 악역이 저절로 사라지는 장면으로 끝나지만 이미지를 떠올려보니 연기처럼 흐리멍덩하고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았다.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역시 죽음을 맞는 게 나을까.

[술의 조언]

“전에 보여준 거 있잖아. 결말 바꾸지 마.”

술이 불쑥 말했다.

“지금 결말이 더 좋아. 주인공이 마음의 지옥에서 해방되는 느낌이라.”

‘해방’이라는 단어가 와닿았다. 내가 왜 결말을 바꾸려고 했더라. 그것도 결국 유림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해방되는 거지. 마음의 지옥에서.”

“.....”

“그거 정말 괴롭잖아. 누구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술이 차분히 말했다.

1. (사실적 읽기) <보기>에서 제시된 유림의 행동을 참고하여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을 써봅시다.

<보기>

1) 그때 규리 뒤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강유림이 눈에 들어왔다. 아까부터 시선이 느껴지긴 했는데 규리와 말하느라 그게 강유림인 줄 알아채지 못했다. 강유림은 내가 자기를 발견했는데도 개의치 않고 나를 계속 지켜봤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듯이.

2) “별게 다 비밀이네. 알겠어.”

강유림이 피식 웃었다. 저렇게 웃을 때마다 의미가 궁금했는데 보다 보니 알 것 같았다. 꼭 자기보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표정 같다고 해야 할까. 재물을 피우는 동생을 보는 듯한 표정.

“급식 먹자고 한 것도 강유림이고 따로 먹자고 한 것도 강유림이지? 개 항상 그러잖아. 항상 () 굴고, 무슨 상황이든 자기 중심으로 만들거든. 근데 그게 대강 봐선 티가 안 나. 좋게 말하면 처세술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애가 약했다고 해야 하나.”

2. (비판적 읽기) 밑줄 친 부분에 제시된 행동에 관한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유림은 우리가 찍어온 서원 사진을 보며 좋다, 사진 배치는 이 순서로 하자, 하면서 거리낌 없이 자기 의견을 늘어놓았다. 답사는 우리가 했으니 남은 과정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듯이. 주영과 다에도 별다른 토를 달지 않았다. 왜 늦었는지, 어디에 있다가 여기로 바로 나타났는지 하는 것들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몫을 했으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건지도 몰랐다.

▶ 이들의 행동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 이들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3. (추론적 읽기) ㉠과 ㉡에 함축된 의미를 비교해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다’의 정의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경아, 너 대박 ㉠착하더라.”

체육 시간이 끝나고 돌아온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나를 빙 둘러싸더니 그중 최은지가 말했다. 수업이 끝날 때쯤 나는 선생님에게 운동장에서 5000원을 주운 사실을 알렸었다. 돈을 주운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길래 내가 대신 나섰던 것이다.

“아, 고마워.”

내가 수줍게 대답하자 아이들이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최은지 무리가 다른 곳으로 몰려가고 나서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김이경. 너 비꼬는 거잖아. 냅다 고맙다고 하면 어떡해?”

“응?”

“넌 눈치도 없어?”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착하다는 말이 나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양심을 지키는 행동이 눈치 없는 짓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중략>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지금 내가 꺼낼 수 있는 진심은 그뿐이었다. 가만히 나를 보던 솔이 말했다.

“넌 약한 게 아니라 ㉡착한 거야.”

착하다니. 그 지긋지긋한 말에 울컥했다.

“그것도 싫어. 착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착한 게 왜 싫어? 다들 착한 척하느라 애쓰는데.”

“.....”

4. (감상적 읽기)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을 읽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이경아. 인간이 제일 솔직해지는 순간은 뭔가를 두려워하는 게 드러날 때야.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숨기지 않는 사람은 마음껏 믿어도 돼. 언젠가 고모가 했던 말이었다.

그런데 실은 말이야. 말이나 표정, 하다못해 그림 같은 것들로 기분을 애써 파악해야 할 필요는 없어. 감정은 전해지는 거고 저절로 느껴지는 거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알 수 있고 통하는 사이 있잖아. 우리 이경이가 얼른 그런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되기를, 고모가 항상 기도할게.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가) 손절할 결심 (...) 갈피를 못 잡고 헛갈리는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강유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 이거 네 친구 맞지?

- 학교 애들 인스타 구경하다가 우연히 봄

규리의 인스타를 캡처한 사진이 뒤이어 올라왔다. 규리의 계정을 직접 아는 사이도 아닌 강유림도 보았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았다. 이 글을 얼마나 많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 또 봤을까. 규리네 반 친구들도 이제 내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낸 거야?”

침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도 목소리가 떨렸다. 유림은 태연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애들이 이거 전술 얘기라길래.”

“그러니까. 이걸 왜 나한테 보냈냐고.”

“너 개랑 친하잖아. 그럼 알고 있어야지.”

유림은 무덤덤해 보였다. 차라리 그 애가 비아냥거리기라도 했으면 싶었다.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유림이 이해가 될 것 같다가도 또 되지 않았다.

“개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 없이 웃는 얼굴로 밖에 못 다녀.”

1-1. (추론적 읽기) (가)와 (나)에서 드러나는 유림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지도 TIP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유림의 행동(이경을 심란하게 만들 메시지를 보여줌)과 본문에서 곳곳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유림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정리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1-2. (사실적 읽기) 다음을 참고하여 (나)의 밑줄 친 유림의 말을 반박해봅시다.

“지금도 봐. 이렇게 다들 즐겁고 시끄러운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이 나 말고 어디 있겠어?”
결석을 끝내고 나서 술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학교로 돌아왔다. 가족이 다 함께 떠났던 도시를 셋만 돌아올 때 술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동안은 술을 보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 없어서 저렇게 잘 웃고 크게 떠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다. 전술이 원래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 쓰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지만. 전술은 ~

2. (사실적 읽기) 이경이 유림에게 불쌍하다고 했던 이유를 찾아봅시다.

“뭐?”

“잘난 척하지 마. 알고 보면 강유림 네가 제일 불쌍해.”

유림은 붉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돌아섰다.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3-1. (추론적 읽기) 사람에 관한 인식에 변화를 겪는 이경과 전술의 모습을 고려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유 없이 사람을 배척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유 없이 남을 돕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날이 선 한 마디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두고도 곱씹으면서 사소하고 일상적인 친절은 금세 잊어버렸다. 한 번 비뚤어진 마음은 자꾸만 인간은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믿을 수 없고 이기적이라는 신념과 어울리는 쪽으로만 시선을 돌리게 했다.

“난 그런 사람들이 반갑더라. 그런 사람들이라면 마음껏 다시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고 그냥 한동네 살아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김이경 너도 그랬겠지.”

사람을 다시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말이 물웅덩이 위로 떨어진 빗방울처럼 잔잔한 파동을 울리며 퍼지는 듯했다. 내가 눌러 담은 말을 술이 대신 한 것 같았다.

지도 TIP

이 작품은 사람에 의해 각각 상처를 받은 이경과 술이 서로를 보듬고 주변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읽으며 작품 초반 인간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는 부분과 그것을 회복하는 장면을 찾아보게 하면 작품을 더 다채롭고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3-2. 3-1의 답을 고려하여 ‘비’의 상징성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는 천막 밖으로 나왔다. 툭, 툭. 빗방울이 우비 모자와 어깨 위, 손등을 때렸다. 이렇게 우산도 없이 온몸으로 비를 맞은 적이 있었던가? 온 감각이 새로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그게 나쁘지 않았다.

저 멀리, 무대 위 조명이 다시 켜졌다. 다음 무대가 시작할 시간이었다. 기대에 찬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누구도 그러자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4. 표지의 그림은 각각 누구인지, 소설의 어떤 부분을 형상화했고 배경이나 소재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등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